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40호 [루게 제23357호] 주제100 (2011)년 2월 9일 (수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2일과 3일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최고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제 6 5 6 군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모든 지휘관들이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지휘능력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군부대에서 군인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준데 대하여 치하하시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또한 조선인민군 정성의확충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연구소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이 조선인민의 체질에 맞는 의약품들을 적극 연구개발하고 여러가지 의약품에 대하여 생산하며 그 질을 높일데 대하여 지적하시었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동행하시었다.

이 나라의 《해방일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인 신화망, 인민망, 보도망, 환구망도 같은 내용을 게재하였다.

로씨야의 이따르-따스통신은

김정일령도자께서 은하수 《설명결연악회》를 관람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음악회무대에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강성대국의 명마루를 향하여 전진하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백절불굴의 영웅적투쟁정신을 보여주는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은하수관현악단의 예술인들이 조선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그대로 반영한 훌륭한 음악회를 진행한데 대하여 평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은하수관현악단이 앞으로 선군조선에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기 위한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음악회를 함께 관람하시었다.

라이신은 《방코코 포스트》도 이와 같은 소식을 실었다.

한편 핀란드 코핀포름보사 인터넷잡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함흥시의 중요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회 국제연합 인터넷홈페이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사리원시의

식료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상세히 전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공군사령부현주단 전차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신 소식을 1월 27일 로씨야와 체코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이따르-따스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령도자께서 공군사령부현주단 전차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었다.

출연자들은 전차기악중주 《여디에 게시니가 그리운 장군님》, 남성5중창 《하늘의 방패 우리가 되리》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전차악단에 출연자들이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치하하시고 예술창조활동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께서 공연을 함께 관람하시었다.

체코주체사상연구 및 연구소장과 백두산체조조선선현열악 인터넷공통홈페이지 《조선-백두산》도 같은 내용으로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쫓피워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

여러 나라에서 경축집회, 신문과 방송들 특집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메히고와 로르니아에서 3일과 4일 경축집회가 진행되었다.

집회에는 해당 나라의 정계, 사회계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으며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일꾼들이 초대되었다.

메히고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헤우스 안도니오 카를로스 에르네스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적대세력들의 도발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시였으며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진두에서 지휘하고계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김정일동지의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따라 조선인민이 올해에도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경이적인 성과를 이룩하리라고 확신하였다.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을 김일성민족의 최상최대의 명절로, 인류사적대장사로 맞이할것이다.

조선에서의 강성대국건설을 위하여,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축원한다.

로르니아조선친선협회 서기장 바셀레 리커무는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아 조선인민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시였으며 선군정치로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인위자주위업을 승리케 하여 이끌어 나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뿐 아니라 진보적인류의 절대적인 신뢰와 다함없는 호모를 받고계신데 대하여 격찬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책동속에서도 사회주의위업을 굳건히 수호해나가고있는 조선의 현실은 선군정치야말로 그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자주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해주는 만능의 보검이라는 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우리는 김정일각하의 령도밑에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단호히 짓부시면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사회주의위업을 수호하고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인다.

로르니아에서 진행된 집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여,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축원한다.

로르니아조선친선협회 서기장 바셀레 리커무는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아 조선인민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시였으며 선군정치로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인위자주위업을 승리케 하여 이끌어 나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뿐 아니라 진보적인류의 절대적인 신뢰와 다함없는 호모를 받고계신데 대하여 격찬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책동속에서도 사회주의위업을 굳건히 수호해나가고있는 조선의 현실은 선군정치야말로 그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자주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해주는 만능의 보검이라는 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우리는 김정일각하의 령도밑에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단호히 짓부시면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사회주의위업을 수호하고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인다.

로르니아에서 진행된 집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는 축전이 채택되었다.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로씨야 신문과 기네방송들이 특집하고 기념보도문을 하였다.

로씨야신문 《에스뎜 노레 아진》 1월 13일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진을 모시고 《조선이 낳은 위대한 영웅》이라는 표제 밑에 여러 제목의 글들을 옹근한면 편집하였다.

신문은 글들에서 조선에서 해마다 김정일령도자의 탄생기념일을 성대히 경축하는것은 조선인민이 그이를 얼마나 흠모하고 따르고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인민을 믿고 인민을 위해 헌신하시는것을 자신의 락으로 간주하신다고 하면서 신문은 인민들과 운명을 같이하시는 것이 나라의 최고명도자이시기에 인민의 친근한 아버지이시라고 칭송하였다.

신문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꾼들이 언제나 인민을 위해 복무할것을 강조하시면서 몸소 인민들속에 들어가 허물없이 이야기 나누시는데 대하여 소개하고 조선인민은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김정일령도자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고있다고 지적하였다.

1월 19일 기네국내방송은 《인민을 숭배하시는 령도자》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일령도자의 인민에 대한 숭배는 그들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히 여기는데서 표현되고있다.

이민위천의 정치리념은 그의 좌우명이다.

인민의 요구와 리익은 그의 모든 사고와 실천의 기준으로, 출발점으로 되고있으며 그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수 없는것으로 되고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하나의 로선이나 정책을 제시하여도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먼저 헤아리시고 그것을 푸는것을 철칙으로 내세우신다.

인민이 바라는데가 있다면 둘우에도 꽃을 피우고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한다는것이 그의 투철한 인민관이다.

김정일령도자의 인민에 대한 숭배는 인민을 절대적으로 믿고 인민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전개해나가는데서 표현되고있다.

김정일령도자의 인민에 대한 숭배는 곧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에 대한 숭배이다. 하기에 그의 제일가는 취미는 인민들속에 들어가서 허물없이 이야기 나누는다는것이며 그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소박한 의견도 들어주시며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은 그의 고유한 령도방식으로 되고있다.

이날 기네국내방송과 7개민족어 방송도 같은 내용을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강성대국건설의 확고한 도약대를 마련하신 불멸의 업적

중앙연구토론회 진행

【평양 2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뜻깊은 지난해에 강성대국건설의 확고한 도약대를 마련하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기 위한 중앙연구토론회가 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와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용익,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성장 김성, 중앙과 평양시의 당, 행정, 근로단체일꾼들, 과학, 교육,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당간부양성기관, 혁명사적부문 일꾼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지난해 강행권 현지지도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를 진두지휘하시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여 실천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김일성고급당학교 초급당비서 홍윤식은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 전도양양한 불멸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라》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그는 우리 당이 수령중심의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 행동의

통일체로 굳건히 다져지고 필승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된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체혁명의 혁명적당건설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우리 당을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당원들의 두리에 일일선단결하여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것이다.

특히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대회와 당창건 65돐을 계기로 우리 당이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님의

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확고히 고수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유일인물인 백방으로 강화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혁명의 혁명적당건설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다음으로 우리 당을 조국과 민족의 창창한 미래를 열어나가는 전도양양한 당으로 존엄전체치 하신것이다.

선군혁명위업이 새로운 력사적전환기에 들어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 불멸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긴 경애하는 장군님의 당건

설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 부총장 조철은 《천만군민의 정신력과 주체화의 포성으로 강성대국의 역센 기둥을 세우신 위대한 업적》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렇게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선군혁명에 참가한 진국청소년학생들을 위한 위대한 김정일장군의 강령적기둥을 세우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전체 군대와 인민이 강성대국의 명마루에로 걸출같이 치달아오르게 하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명도는 도처에서 혁혁한 성과들을 낳게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화의 광대한 포성을 쏘아 올리시어 강성대국의 역센 기둥을 세우주시었다.

김철에서 최철단의 주체철생산체계를 완성하는 자립경제의 대승리, 주체화의 경이적인 특대사건이 일어나고 2.8비날론연합기업소와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현대화, 과학화가 높은 수준에서 완성되어 온 나라에 대장사를 불러오는 자랑찬 현실이 펼쳐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최철한기

계종합공장을 21세기의 표본공장으로 내세우시고 주체화의 불길, CNC화의 열풍이 기간공업에서뿐 아니라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세계 타민지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었다.

사회과학원 원장 태형철은 《불멸불후의 강행권현지지도로 주체화의 경이적인 특대사건이 일어난 위대한 령도》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바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를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2면으로 계속

대고추의 불길에 더워 피이며

고산과수농장 현대화공사에서 위훈 창조

강원도 일꾼들과 당원들, 근로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오늘 우리의 투쟁은 비록 간고하지만 그것은 사회주의를 지키고 내 나라, 내 조국을 부강하게 하기 위한 투쟁이며 인민들의 행복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입니다.》

당의 웅대한 강성대국건설 구상에 따라 온 나라 도처에서 세 인을 경탄시키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편이 일어 나고있는 시기에 강원명에서 또 하나의 자랑찬 로력적성 과가 이룩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승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한사관들이 펼쳐나선 도안의 일꾼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결사판결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고산과수농장 현대화공사

에서 중요한 공정의 하나인 파이프나누심기를 위한 구멍이 파기와 자급비료넣기를 40여일동안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이들은 헌신적 투쟁으로 근 90만㎡의 토량을 처리하였으며 총연장 길이가 1 200여km나 되는 13만 5 700여개의 구멍을 파내고 자재로 생산한 5만여t의 자급비료를 구멍마다에 채워넣음으로써 청춘파원건설을 앞당길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으로 도안의 일꾼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조직적지사

업을 전투적으로 벌여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맡겨 주신 영예로운 과업을 기어 이 관철할 결의를 안고 한사관들이 펼쳐나선 도안의 일꾼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공사장마다에서 새로운 위훈과 혁신을 창조하였다.

1단계공사기간 도민위원회회를 비롯한 도급기관에서는 공사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첫 전투부터 드세한 공격전을 들이대어 불과 한 주일동안에 많은 과제를 훌륭히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사장으로 제일먼저 달려나선 원산농업종합대학과 원산수산대학에서는 불리한 작업조건에 맞게 합리적인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공사를 앞당겨 끝내는데 크

게 기여하였다.

창도군의 일꾼들과 돌격대원들은 현장에서 소공구건설회를 특색있게 조직하고 공사를 박력있게 내밀어 늘 앞 줄로써 성과를 떨치었다.

문천시와 회양군, 금강군, 원산시, 세포군, 통천군을 비롯한 시, 군들에서도 불리한 날씨조건에 맞게 공사지휘를 짜고들어 매일 맡겨진 과제를 1.5배이상 넘쳐 수행하여 불과 보름 남짓한 주일동안에 많은 과제를 빛나게 수행하였다.

2단계공사를 맡은 철원군, 안변군, 평강군, 천내군, 고산군안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구멍이파기와 거름넣기를 규정의 요구대로 질적으로 끝내는 성과를 거

전국 청소년 학생들의

맹세모임 진행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백두산 일일영고향집에로의 단사행군에 참가한 전국청소년학생들이 6일 맹세모임을 가지었다.

모임에 앞서 참가자들은 백두산일영에 진입된 절사 위인들의 영상을 모신 모시이크벽화에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모임은 백두산일영고향집 앞에서 진행되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며 인민군대에 적극 입대하여 사회주의조국을 충대로 굳건히 지킬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비서의 선창에 따라 위대한 김정일장군의

전조건설장을 비롯한 강성대국건설의 격전장들마다에서 청춘의 열기와 용맹을 날려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

었다.

그들은 혁명의 사명부를 목숨으로 보위한 항일선열들처럼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신념의 구호를 들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결사옹위해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며 인민군대에 적극 입대하여 사회주의조국을 충대로 굳건히 지킬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백두산선군청년발

백두산천지종합탐험 활발

면 천지일대의 지각변동과 천지일대의 지형상태가 지난해와 차이가 없으며 동물들의 활동도 정상이다.

원산도인 두터운 얼음층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며 한겨울에도 뜨거운 물길을 뿜어올리는 백두산천도 자기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고있다.

최근 백두산의 최저기온은 지난해보다 1℃ 더 낮게 관측되어 어느해에 비하여 추위가 좀 심하고 장군봉에서의 순간최대바람속도는 40m/s이며 천지의 얼음층두께는 1m이상으로서 점점 두터워지고있다.

청서, 북쪽제비, 다람쥐 등 천지호반에 정착하여 사는 짐승들이 남긴 발자국들이 뚜렷하고 진귀한 동물인 우는노

끼의 울음소리를 자주 들을수 있다. 우리 인민의 역센 기상이런듯 눈속에서도 류달리 키 돌음하는 백두산의 만병초가 바위도 쟁쟁 얼어터진다든 혹 한속에서도 푸른 일세를 기운 차게 펼쳐지고있다.

눈덮인 아득한 밀림우에 동하는 내 조국의 새 아침을 부르며 솟아오르는 백두산의 해돋이가 장엄하다. 하루밤에 천리를 내달라는 눈보라, 아슬한 협곡을 순간에 메워버리는 눈사태, 끝간데없이 펼쳐진 눈바다와 천태만상의 얼음산, 온천가까이에 만발한 서리꽃...

세계의 명산 백두산은 장엄한 위용과 함께 신비로운 아름다움으로 하여 겨울철의 절경을 펼쳐보이고 있다.

탐험대원들은 예국총정의 불같은 의지를 안고 관측과 조사연구사업, 생활을 항일유격대식으로 진행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전철주

탐험대원들이 관측한데하면 1월 1일 백두산은 해돋이

부리가 장관이었다. 초당 30m이상의 강한 바람으로 는가루가 세계를 날리더니 아침 7시경 은 하늘을 뒤덮었던 먹장구름이 삼시에 걷히면서 찬란한 태양이 솟아올랐다.

이 7시 15분경 정일봉 동쪽능줄가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좌우에 두개의 큰 무지개가 비끼어 황홀경을 펼치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1월 5일 오전 10시 15분경에는 철색명봉한 반원형의 무지개가 한쪽 끝은 장군봉에, 다른 한쪽 끝은 해발봉에 두고 약 15분간 비껴있었다.

탐험대원들은 예국총정의 불같은 의지를 안고 관측과 조사연구사업, 생활을 항일유격대식으로 진행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전철주



막장의 대화화를 실현하여 광물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 통양광산에서 -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새해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어왔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주제 100 (2011)년 새해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어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네팔공산당 (통일된 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위원장, 인도네시아인민혁명당 중앙지도체서 총위원장장 총서기, 케히-모라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캄보디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캄보디아공산당 전직총서기위원장, 새유고슬라비아공산당 총서기장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어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또한 슬로베니아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국제김일성기념 리사장, 로씨야인민혁명당부주제 대통령전대표, 바레인, 수리아, 싱가포르, 쿠웨이트, 타이, 아랍장주국, 이란, 인도네시아, 예멘, 그리스,

노르웨이, 단마르크, 도이쉴란드, 벨기에, 스위스, 체코, 폴란드,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에리트레아, 에콰도르의 정계, 사계, 경제계고위인사들과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통일지 및 친선단체 대표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어왔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새해를 맞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뜨거운 인사와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렸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영도과 조건의 군대와 인민이 지난해에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 선군조선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한데 대하여 축전과 축하편지들은 지적하였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새해에도 조선인민이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본사기자

시대의 앞길을 밝히시는 비범한 사상리론가

뜻깊은 2월의 명절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혁명의 성지가 자리잡은 북변의 삼지연지에는 백두의 서리꽃이 활짝한 설경을 펼쳐놓고 기적과 혁신의 기상 나뉠지는 이 땅 그 어디서나 빛나는 로적정성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 드릴 축원의 꽃다발을 삼가 엮고있다.

로씨야, 인디아를 비롯한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서 경사스런 2월의 명절을 성대히 기념하기 위하여 걸성된 경숙준비위원회들이 더욱 활기를 띠고있다.

희세의 천출위인인 성스러운 혁명력사에 대한 뜨거운 추억과 비범한 위인상에 대한 정중, 불멸의 혁명영예에 대한 다함없는 경탄으로 온 나라, 온 세계가 끝없이 설레이는 이 시각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로 쏠리고 있다.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할 신승고한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빛내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우리를 수복 천제적인 사상리론가의 위인적풍모가 어려와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다.

주체시대의 걸출한 사상리론가, 세세기를 대표하는 사상리론의 거장... 오늘 세계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서 울려나오는 이 청송의 목소리에는 혁명의 천리, 만리를 쫓아다니는 비범한 예지와 그 어떤 최성벽에도 드물지 않는 담대한 배양, 강철도 녹일 무한대의 열정을 지니시고 불멸의 사상리론활동으로 혁명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호모와 그이를 모시어 승승장구하는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을 위한 굳은 믿음의 담겨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비상한 탐구력과 정력을 가지고 사상리론활동을 벌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빛내여나가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비범한 사색과 탐구, 명철한 통찰력과 분석판단력, 비상한 기억력과 해박한 식견, 드물었던 예민한 통리와 추측같은 명세들로 빛나는 사상리론 활동을 벌리신 우리 장군님입니다.

김일성총화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날로부터 혁명과 건설을 영도해오시는 전기간 우리 장군님께서 집필 발표

하신 로작들이 그 얼마인지 모른다.

그의 로작들에 밝힌 사상리론들은 모두 새로운 명명들이고 시대적해결을 기다리는 참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다.

현시대에 인류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지도사상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뿐이다!

20세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발전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주체사상의 변혁적역할을 명철하게 통찰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비범한 예지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시어 우리 시대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규정하신것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서 진환적의를 가지는 특기할 사변이었다.

로통계급의 혁명운동력사에 우리 개국최초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그렇듯 깊이있게 집약적으로 정식화한 사실이 기록되지 않았던가.

하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늘 김정일동지는 자신의 혁명사상을 이미 오래전에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였다고, 자신의 혁명사상을 사상, 리론, 방법의 3대구성체로 정립한것도 만점이 3대구성체로 논리적으로 전개한것도 만점이 3대구성체로 논리적으로 전개한것도 만점이라고 긍지높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을 영도하시는 나날에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주체사상의 불모를 더욱 발전 풍부하시였다.

당과 국가의 전반사상을 돌보시는 그에게 있어서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는 시간은 따로 없었다.

총대 번쩍이는 전진길, 들끓는 현상들로 끝없이 이어지는 현저지도의 길에 온 그의 사색과 탐구의 순간순간이었다.

인문문화예술의 앞길을 휘황히 밝히는 《주체문학론》, 《영애예술론》, 《무용예술론》, 《미술론》 등은 우리 장군님께서 역사적인 영화혁명, 가국혁명, 연극혁명, 무소 지도하시던 나날에 구상하고 완성하신 불후의 고전적 로작들이다. 그에게서 창성, 작주, 황홀을 비롯한 수많은 단위를 찾았으며 하신 당과와 연설, 발표로써 문물들은 또 얼마인지인가.

그 모든 저서들에 인민의 지향과

요구가 집대성되어있어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리론이 그처럼 거대한 견인력을 가지고있는것 아니라.

언제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사상함을 바라보시며 아나 내가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정식화하기 위하여 학창 시절부터 읽은 책을 차곡차곡 쌓아놓은다면 저 주체사상함을 고이고있는 대를 만큼 펼칠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시였다.

주체사상함을 떠날것고있는 웅장한 대들만듬!

인류정신문화의 높은 지성세계를 지니고계시기에 우리 장군님의 사상리론활동의 영역은 그토록 폭넓고 방대한 것이다. 그에게서 발표하신 역사적 로작들에는 세계관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명을 준 주체사상, 주체철학의 총서들이 있는가 하면 인민대중중심의 정치사상과 리론, 정치방식을 집대성한 주체의 정치학로작들도 있으며 주체의 군사사상과 리론, 전법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한 주체군사학의 대전서기가 있는가 하면 자립적민족경제건설과 사회주의경제관리 체계와 방법을 비롯한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경제관리문제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주체의 경제학로작들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당과 정권, 근로단체인사, 문학예술, 조국통일과 세계자주화위업 등 그에게서 발표하신 로작들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하고있다.

인류사상발전의 역사에는 사회과학의 일정한 부분에 대한 탐구와 사색으로 진보적사상발전이 기여한 사상리론가들은 있었지만 우리 장군님과 같이 폭넓고 다양한적인 사상리론가는 동서고금 그 어느 나라에도 없었다.

1990년대, 사회주의위업이 커다란 위험에 직면하였던 시기에 버티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리론활동은 세인의 경탄을 자아내었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경애하는 그에게서 단번에 사태의 본질을 통찰하시는 비범한 안목, 예리한 정치적각각과 해박한 식견, 예도로 정리된 철학적사색과 완벽한 논리교류 논과 과학에서의 사회주의불패의 이론을 과학적으로 밝혀내지 않으셨던다면 승승장구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오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민족의 생사존망이 판가리되었던 역경속에서도 우리 장군님께서 사상리론

활동을 순간도 멈추지 않으셨다.

사회주의가 존재하느냐 말하느냐, 인민이 자주적권위임이 되느냐 노예가 되느냐 하는 엄숙한 물음이 제기되던 그 시기 우리 장군님의 어깨에는 너무나도 많은 짐이 실려있었다. 민족의 운명을 걸머진 령도자로서 종대한 국가들을 수없이 처리하시야 하는 그땀 분방하신 속에서도 우리 장군님께서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사회주의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담보하시였다.

우리 인민을 사상의 강자로, 내 나라를 사상의 강국으로 존엄롭게 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사상리론활동!

위대한 사색으로 이어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무한한 헌신에 의하여 사상의 강국이 일떠서고 전군, 전민이 사상의 강자로 자라났으며 새로운 선군리론분야가 개척되였다.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다! 총대위에 평화와 있고 사회주의가 있다!

인류사가 알지 못한 독창적인 선군혁명리론을 정립하시고 발전 풍부하시여 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리론활동이야말로 얼마나 비범한것인가.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어 지나온 혁명의 년대들에 이룩된 기적적승리는 우리 장군님이 시야말로 거창한 혁명실현속에서 사상리론의 총자람을 담고서 현실속에서 직접 구현하신 실천가로서의 사상리론가시라는것을 전하고있다.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따를수 없는 사상리론적탐구와 사색, 지침을 모르는 정력을 지니시고 애국헌신의 길을 걸으셨으며 사회주의강성대국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오늘 강성대국의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돌진해가는 천만군민의 앞길을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진을 이룩할데 대하여》, 《조선인민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 새겨진 신념의 글밭들이 빛나고있다.

사상의 위력에는 한계가 없다.

희세의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어 우리 조국은 사상의 강국, 정치의 강국으로 영원히 빛을 보실것이며 그길위에 어버이수령님께서 그토록 넘쳐나신 사회주의강성대국은 반드시 일필결지이다.

본사기자 백영미

새롭게 밝혀주시는 혁명가의 인생관

인민생활향상대전의 성과 여부는 지휘성원들, 일군들에게 달려있다는 올해공동사설의 구절을 새겨보느라 선군혁명령도의 나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일군들에게 참된 인생관을 깨우쳐주시던 잊지 못할 화석이 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는 끝없이 변명할 우리의 사회주의조국, 그 품속에서 더욱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누릴 우리 인민의 모습을 그리며 그 어떤 난관도 달게 여기며 일하고있습니다.》

하늘땅을 진감시키며 우리의 영웅적인인민군포병들이 머뭇머뭇하는 일제사적의 장엄한 포성이 울리던 몇해전 2월 어느날에 있는 일이다.

심장을 쿵-쿵-울리는 포성이 주체의 강성대국승리의 속초성처럼 들려와 일군들의 가슴은 세차게 두근거렸다.

이날 일군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오늘의 역사적인 투쟁에서 장군님을 받들어 푸르른 거목의 일사기귀 될 자기를

의 결의를 말씀드리었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미소를 지시하며 그의 의미보다 뜻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하시면서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올해를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해로 되게 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일군들이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 일군들은 나무의 뿌리처럼 조국과 혁명을 받드는 뿌리가 되야 한다. ...

뜻깊은 그 말씀에 내뉘고 있는데 얼굴에 숨던 빛이 어린 일군들에게 그이께서는 천천히 거니시면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나무가 성실하게 자라자면 뿌리가 든든하여야 한다. 뿌리가 짙으면 아무리 큰 나무도 잘라지고간다. 거목이 무성한 가지와 잎을 띄고 거연히 서있는것은 뿌리가 든든하여 영양을 흡수하여 보내주기때문이다. 거목은 눈에 보이지만 뿌리는 보이지 않는다. 아릅다운 거목을 보고 갈판하는 사람

은 있어도 그 거목을 받쳐주고 있는 뿌리에 대하여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것이다. 뿌리는 누가 알아주진않지만 땅속에서 거목을 위하여 쉬임없이 일한다. 혁명과 혁명가사이의 관계는 거목과 뿌리사이의 관계와 같다고 말할수 있다. ...

들을수록 심오하고 중심깊은 그의 말씀은 일군들의 흥벽을 세차게 두드리며 평평평 울리었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혁명이 거목이려면 혁명가들은 그 뿌리라고, 혁명이라는 거목이 어떤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승장구해나가자면 뿌리인 혁명가들이 견고하고 충실하여야 한다. 혁명의 뿌리가 되자, 이것이 오늘 우리 혁명가들이 지나야 할 인생관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얼마나 사리정연하고 철학적이기 있는 귀중한 가르치심인가. 새로운 인생관을 가슴부듯이 받아안은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위하여 거목을 받드는 뿌리가 되겠다는 신념의 맹세를 다지였다.

김 명 훈

다가고있다.

혁명의 성지가 자리잡은 북변의 삼지연지에는 백두의 서리꽃이 활짝한 설경을 펼쳐놓고 기적과 혁신의 기상 나뉠지는 이 땅 그 어디서나 빛나는 로적정성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 드릴 축원의 꽃다발을 삼가 엮고있다.

로씨야, 인디아를 비롯한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서 경사스런 2월의 명절을 성대히 기념하기 위하여 걸성된 경숙준비위원회들이 더욱 활기를 띠고있다.

희세의 천출위인인 성스러운 혁명력사에 대한 뜨거운 추억과 비범한 위인상에 대한 정중, 불멸의 혁명영예에 대한 다함없는 경탄으로 온 나라, 온 세계가 끝없이 설레이는 이 시각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로 쏠리고 있다.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할 신승고한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빛내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우리를 수복 천제적인 사상리론가의 위인적풍모가 어려와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다.

주체시대의 걸출한 사상리론가, 세세기를 대표하는 사상리론의 거장... 오늘 세계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서 울려나오는 이 청송의 목소리에는 혁명의 천리, 만리를 쫓아다니는 비범한 예지와 그 어떤 최성벽에도 드물지 않는 담대한 배양, 강철도 녹일 무한대의 열정을 지니시고 불멸의 사상리론활동으로 혁명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호모와 그이를 모시어 승승장구하는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을 위한 굳은 믿음의 담겨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비상한 탐구력과 정력을 가지고 사상리론활동을 벌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빛내여나가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비범한 사색과 탐구, 명철한 통찰력과 분석판단력, 비상한 기억력과 해박한 식견, 드물었던 예민한 통리와 추측같은 명세들로 빛나는 사상리론 활동을 벌리신 우리 장군님입니다.

김일성총화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날로부터 혁명과 건설을 영도해오시는 전기간 우리 장군님께서 집필 발표

하신 로작들이 그 얼마인지 모른다.

그의 로작들에 밝힌 사상리론들은 모두 새로운 명명들이고 시대적해결을 기다리는 참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다.

현시대에 인류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지도사상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뿐이다!

20세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발전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주체사상의 변혁적역할을 명철하게 통찰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비범한 예지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시어 우리 시대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규정하신것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서 진환적의를 가지는 특기할 사변이었다.

로통계급의 혁명운동력사에 우리 개국최초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그렇듯 깊이있게 집약적으로 정식화한 사실이 기록되지 않았던가.

하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늘 김정일동지는 자신의 혁명사상을 이미 오래전에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였다고, 자신의 혁명사상을 사상, 리론, 방법의 3대구성체로 정립한것도 만점이 3대구성체로 논리적으로 전개한것도 만점이 3대구성체로 논리적으로 전개한것도 만점이라고 긍지높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을 영도하시는 나날에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주체사상의 불모를 더욱 발전 풍부하시였다.

당과 국가의 전반사상을 돌보시는 그에게 있어서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는 시간은 따로 없었다.

총대 번쩍이는 전진길, 들끓는 현상들로 끝없이 이어지는 현저지도의 길에 온 그의 사색과 탐구의 순간순간이었다.

인문문화예술의 앞길을 휘황히 밝히는 《주체문학론》, 《영애예술론》, 《무용예술론》, 《미술론》 등은 우리 장군님께서 역사적인 영화혁명, 가국혁명, 연극혁명, 무소 지도하시던 나날에 구상하고 완성하신 불후의 고전적 로작들이다. 그에게서 창성, 작주, 황홀을 비롯한 수많은 단위를 찾았으며 하신 당과와 연설, 발표로써 문물들은 또 얼마인지인가.

그 모든 저서들에 인민의 지향과

요구가 집대성되어있어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리론이 그처럼 거대한 견인력을 가지고있는것 아니라.

언제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사상함을 바라보시며 아나 내가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정식화하기 위하여 학창 시절부터 읽은 책을 차곡차곡 쌓아놓은다면 저 주체사상함을 고이고있는 대를 만큼 펼칠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시였다.

주체사상함을 떠날것고있는 웅장한 대들만듬!

인류정신문화의 높은 지성세계를 지니고계시기에 우리 장군님의 사상리론활동의 영역은 그토록 폭넓고 방대한 것이다. 그에게서 발표하신 역사적 로작들에는 세계관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명을 준 주체사상, 주체철학의 총서들이 있는가 하면 인민대중중심의 정치사상과 리론, 정치방식을 집대성한 주체의 정치학로작들도 있으며 주체의 군사사상과 리론, 전법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한 주체군사학의 대전서기가 있는가 하면 자립적민족경제건설과 사회주의경제관리 체계와 방법을 비롯한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경제관리문제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주체의 경제학로작들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당과 정권, 근로단체인사, 문학예술, 조국통일과 세계자주화위업 등 그에게서 발표하신 로작들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하고있다.

인류사상발전의 역사에는 사회과학의 일정한 부분에 대한 탐구와 사색으로 진보적사상발전이 기여한 사상리론가들은 있었지만 우리 장군님과 같이 폭넓고 다양한적인 사상리론가는 동서고금 그 어느 나라에도 없었다.

1990년대, 사회주의위업이 커다란 위험에 직면하였던 시기에 버티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리론활동은 세인의 경탄을 자아내었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경애하는 그에게서 단번에 사태의 본질을 통찰하시는 비범한 안목, 예리한 정치적각각과 해박한 식견, 예도로 정리된 철학적사색과 완벽한 논리교류 논과 과학에서의 사회주의불패의 이론을 과학적으로 밝혀내지 않으셨던다면 승승장구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오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민족의 생사존망이 판가리되었던 역경속에서도 우리 장군님께서 사상리론

활동을 순간도 멈추지 않으셨다.

사회주의가 존재하느냐 말하느냐, 인민이 자주적권위임이 되느냐 노예가 되느냐 하는 엄숙한 물음이 제기되던 그 시기 우리 장군님의 어깨에는 너무나도 많은 짐이 실려있었다. 민족의 운명을 걸머진 령도자로서 종대한 국가들을 수없이 처리하시야 하는 그땀 분방하신 속에서도 우리 장군님께서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사회주의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담보하시였다.

우리 인민을 사상의 강자로, 내 나라를 사상의 강국으로 존엄롭게 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사상리론활동!

위대한 사색으로 이어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무한한 헌신에 의하여 사상의 강국이 일떠서고 전군, 전민이 사상의 강자로 자라났으며 새로운 선군리론분야가 개척되였다.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다! 총대위에 평화와 있고 사회주의가 있다!

인류사가 알지 못한 독창적인 선군혁명리론을 정립하시고 발전 풍부하시여 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리론활동이야말로 얼마나 비범한것인가.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어 지나온 혁명의 년대들에 이룩된 기적적승리는 우리 장군님이 시야말로 거창한 혁명실현속에서 사상리론의 총자람을 담고서 현실속에서 직접 구현하신 실천가로서의 사상리론가시라는것을 전하고있다.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따를수 없는 사상리론적탐구와 사색, 지침을 모르는 정력을 지니시고 애국헌신의 길을 걸으셨으며 사회주의강성대국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오늘 강성대국의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돌진해가는 천만군민의 앞길을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진을 이룩할데 대하여》, 《조선인민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 새겨진 신념의 글밭들이 빛나고있다.

사상의 위력에는 한계가 없다.

희세의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어 우리 조국은 사상의 강국, 정치의 강국으로 영원히 빛을 보실것이며 그길위에 어버이수령님께서 그토록 넘쳐나신 사회주의강성대국은 반드시 일필결지이다.

본사기자 백영미



위대한 장군님께서 씩으신 불멸의 사상리론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가는 참관자들 - 주체사상로작전시관에서 - 최충성 찍음

수령님 념원을 꽃피우시는 길에서

영원한 생명선

어버이수령님의 유혼의 뜻을 받들어 이 땅위에 거머이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드림없는 신념이고 의지이다.

언제인가 끊임없는 현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군들에게 이 땅위에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잘 사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뜻이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엮어오신

영원한 생명선

성스러운 혁명실록의 갈래들이 눈앞에 어려와 일군들은 크나큰 격정에 휩싸였다. 인민들이 드물던 운동장에서 발견한 잘 때에도 인민의 행복을 위한 현저지도의 길에 걸신 우리 장군님 아니신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뜨거움에 젖어있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제일 큰 기쁨

우리 수령님께서 보시었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이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영원한 생명선

모든 일군들은 나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거머이 인민생활 문제를 풀어 수령님의 유혼을 관철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수령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본분을 다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유혼을 영원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도덕이라는 얼마나 뜨거웠는가.

우리의 수령님께서 보시었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이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영원한 생명선

주체철에 의한 우리 식의 계획경제의 성공은 수령님의 주체철사상의 빛나는 승리라고 크나큰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주체철생산체계의 완성을 위하여 그처럼 마음쓰신 어버이수령님의 유혼이 또 하나 실현된것을 두고 그처럼 만족하시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그의 이런 고결한 총정의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우리 조국의 하루하루를 흐르고 이런 거창한 날과 달의 흐름과 더불어 어버이수령님께서 바라시던 모든것이 하나하나 현실로 꽃피어나고있다.

본사기자

경제관리의 개선은 대고조승리를 위한 중요한 방도

오늘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긴철의 호소에 열렬히 호응하며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생산투쟁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대중의 양양된 혁명적열정과 생산의욕을 더욱 고조시켜 공동사실에서 제시된 경제과업들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하나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를 개선하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완성해나가는것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입니다.》

모든 사업의 성과는 과학적으로 세워진 구체적인 방법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경제건설도 마찬가지이다. 생산과 소비의 관계가 아무리 크다고 하여도 경제관리가 따라서 지 못하면 생산을 정상화할수 없으며 나아가서 전민적경제개발을 높이는 상승세에도 올려세울수 없다.

사상은 전진하고 현실은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 여기에 따라 경제관리의 개선도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물론 사회주의경제관리의 목적과 성격, 기본원칙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경제의 발전속도와 규모에 맞지 않게 경제관리를 고수하는것은 경제관리를 개선하여 우리 현실의 경제강국건설이 빛나는 현실로 꽃피울수 있다.

오늘 우리 당의 혁명적 령도 밑에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최첨단 설비들을 갖춘 현대적인 공장, 기

업소들이 수없이 일떠서고 최첨단 과학기술의 눈부신 성과들이 끊임없이 이룩되고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는 과정에 과학기술과 생산이 더욱 밀착되고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이 비상이 높아지고있다. 우리의 지평경제가 무섭게 용을 쓰며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은 경제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해나갈것을 요구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주체공업의 위력을 더욱 힘있게 과시하고 인민경제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열쇠가 있다.

경제관리의 개선은 무엇보다도 대중의 혁명적열정과 창조적능력을 더욱 불러일으키는 높은 생산적성과를 이룩하게 한다.

경제관리의 실제적인 주인은 생산자대중이다. 경제관리가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그리고 대중자신의것으로 될 때 나라의 경제가 하나의 생산유기체를 이루고 집단주의위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면서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할수 있다.

근로자들의 사회적으로 합리적으 조직하여 대중의 열의를 최대한으로 불러일으키는것은 경제관리를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인민대중이 경제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원리가 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생산의 사회화수준이 높아지는 조건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수 있도록 제재적소에서 일하게 하고 로동조건을 잘 보장해주는것은 대중의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

어키는 중요한 비결로 된다.

집단주의원칙은 사회주의적정판리의 생명선이다.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 버리는 창조적능력을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 기초우에서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집단과 개별근로자들의 경제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동지적애를 바탕으로 한 경제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해나갈것을 요구하는 원칙에서 경제관리를 개선해나가기에 대중의 혁명적열정과 창조적능력이 높아지고 생산에서 커다란 혁신이 일어나게 된다.

경제관리의 개선은 또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요구에 맞게 기업관리를 짜고들어야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하게 한다.

올해공동사설에서는 모든 단위에서 계획규율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사회주의경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에 기초하여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경제이다. 인민경제의 계획적경제관리를 확고히 보장하자면 계획화사업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경제부문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있는 것만큼 매개 단위의 계획수행이 가지는 의의는 크다. 이것은 고도로 조직화되어있는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의 본성적요구이며 생산과 소비의 끊임없는 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특히 오늘 생산규모와 능력이 비상이 높아진 현실적조건에 맞게 매개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업관리운영을 실리주의적 원칙에서 해나가자면 생산능력에

따르는 로적, 설비와 자체 그리고 가격과 원가, 수익성관계를 잘 타산하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적은 지출로 최대한의 실리를 얻을수 있다. 계획규율을 강화하여야 집단적인민경제가 활성화되고 현시기 공업업에 절실히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제때에 보장해줄수 있다.

인민경제계획은 국가의 법이다. 기업관리를 짜고들며 맡겨진 계획적능력을 어기려고 생산에서 여기에 전국구적인 실리를 보장하고 인민생활대고조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는 비결이 있다.

경제관리의 개선은 또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생산경영활화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할수 있게 한다.

현시대는 과학기술에 토대하여 사회경제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지식경제의 시대이다. 지식경제시대에는 사람들의 생산성, 경제활동에 어떤 에너지를 가 기적인 생산성비가 아니라 지식, 자료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정보 특수한 생산요소로 경제발전에서 핵심적역할을 한다. 따라서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하는 가장 합리적인 생산경영활동을 벌려 나가자면 경제관리를 시대적추세에 하루빨리 접근시키는것이 필수적으로 나이다.

오늘 정보과학기술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의 지식수준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자료가 지축성사업을 잘하여 정보량을 부단히 늘이고 개선하기 위한 관리체

계와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는것도 경제관리개선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인제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며 경제발전에서 중추적역할을 담당수행한다. 인재를 적극 찾아내고 동원하는 사업을 일관성있게 밀고나가야 인민대중이 경제관리의 실제적인 주인으로서의 책임적인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생활력이 더욱 높아질수 있다.

경제관리를 개선하는데서 내각과 경제지도기반 일군들의 임무는 대단히 크다. 정치지도와 경제기술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민주주의와 유일적지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대안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원칙을 지로 하여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를 개선하여야 한다. 그에게 당의 경제강국건설목표와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일군들의 실력은 곧 실적이다. 오늘날의 대고조시대 경제지도일군들은 최선과학기술에 정통한 박학자가 되어야 하며 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론을 정확히 틀어쥐고 경제관리를 실현해나가는 실천가가 되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이 바라는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서 일군의 본분이 있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우리 당의 경제강국건설목표를 확고한 지침으로 틀어쥐고 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열정과 정열을 다 바쳐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조건을 힘있게 추동해나가야 할것이다.

김 성 룡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적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군력을 백방으로 다지시어 조국과 혁명,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지켜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해 회철발전에서 중추적역할을 담당수행한다. 인재를 적극 찾아내고 동원하는 사업을 일관성있게 밀고나가야 인민대중이 경제관리의 실제적인 주인으로서의 책임적인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생활력이 더욱 높아질수 있다.

경제관리를 개선하는데서 내각과 경제지도기반 일군들의 임무는 대단히 크다. 정치지도와 경제기술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민주주의와 유일적지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대안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원칙을 지로 하여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를 개선하여야 한다. 그에게 당의 경제강국건설목표와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일군들의 실력은 곧 실적이다. 오늘날의 대고조시대 경제지도일군들은 최선과학기술에 정통한 박학자가 되어야 하며 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론을 정확히 틀어쥐고 경제관리를 실현해나가는 실천가가 되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이 바라는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서 일군의 본분이 있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우리 당의 경제강국건설목표를 확고한 지침으로 틀어쥐고 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열정과 정열을 다 바쳐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조건을 힘있게 추동해나가야 할것이다.

김 성 룡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의 밑뿌리가 될 자각과 헌신

농업전선에서 과학기술의 열풍을 세차게

농업과학의 일꾼들과 과학자들이 인민생활을 위한 올해의 총진군에 떨쳐나섰다.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인 농업전선의 승리를 과학기술로 안받침해나갈 결사의 의지와 각오가 이들의 진군속도에 박자를 가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농업과학연구부문에서는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당의 농업혁명방향을 관철하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야 합니다.》**

지금 농업과학원에서는 책임일꾼들의 적극적인 지도밑에 농업생산에서 큰 힘을 일으키는데 대한 공동사실과 생산동력으로 부른 김형주동지계의 전투적투소에 힘써 올해에 올해에 나라의 농업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들이 활기있게 벌어지고있다.

나라의 농업생산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와 방조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강화되고있다. 특히 주목되는것은 황해남도 농업생산에 과학기술적으로 지도방조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인력향을 집중하고있는 것이다.

아버 이수형님의 탄생 100돐을 눈앞에 둔 올해에 나라의 농업생산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있는 이 도의 농업생산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켜 황해

농업과학원

남도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농사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 아버지 이수형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농업과학원 일꾼들과 함께 농업전선에서 변혁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이 달성해야 할 중요성이 인식되고있다. **《농업과학원에서는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당의 농업혁명방향을 관철하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야 합니다.》**

이제 기초하여 과학원아래의 많은 전문화연구소들과 황해남도 농업생산에 과학기술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지리별농사작전과 토양관리, 종자처리, 모판관리, 모내기, 비료주기를 비롯하여 모든 공정보에 따르는 계획들도 명백히 확정되었다. **《농업과학원에서는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당의 농업혁명방향을 관철하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야 합니다.》**

이제 기초하여 과학원아래의 많은 전문화연구소들과 황해남도 농업생산에 과학기술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지리별농사작전과 토양관리, 종자처리, 모판관리, 모내기, 비료주기를 비롯하여 모든 공정보에 따르는 계획들도 명백히 확정되었다. **《농업과학원에서는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당의 농업혁명방향을 관철하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야 합니다.》**

농업과학원

한편 과학원에서는 농업부문의 일꾼들과 긴밀한 관계밑에 아버지 이수형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여러 본보기농장들과 각지의 50개 주요시, 군들에 160여명의 능력이 있는 과학자들을 파견하여 이 단위들에서 올해에 높이 세운 알곡생산목표를 달성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벌리고있다. **《농업과학원에서는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당의 농업혁명방향을 관철하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야 합니다.》**

많은 일꾼들과 농업과학자들이 이미 농사차비로 들끓는 각지의 여러 시, 군들에 내려가 현지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과 힘을 합쳐 올해농사를 잘 짓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전개해나가고있다. **《농업과학원에서는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당의 농업혁명방향을 관철하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룩된 농업과학기술성과를 비롯한 나라의 농업생산에 적극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전개해나가고있다. **《농업과학원에서는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당의 농업혁명방향을 관철하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고대하고 퇴근하였던 한선호 동무는 한시간도 채 못되어 다시 집문을 나섰다. 일러 보지않고도 다우지는 그의 눈앞에는 밤금 잃은 편지의 글자들이 계속 떠올랐다. 그 편지들은 아버지의 고향인 대동군에서 친척들이 보내온 것이었다. 편지에는 정조부터 들끓는 협동벌의 습격이 후련히 실려있었다. 농촌들이 더 많은 트랙터를 보내주어야 하는 때에 추르든 고장에서 날아온 편지들은 그로 하여금 트랙터모생선의 첫 공정을 맡은 한선호의 책임감을 이 세상에 하였다. **《농업과학원에서는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당의 농업혁명방향을 관철하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야 합니다.》**

풍곡탄광 1갱 채탄 1중대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개혁신신, 계속전진하는것은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혁명적기풍입니다.》**

지난 1월 중순 어느 날 경에서 진행된 사회주의경쟁총회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중대장 황철웅동무의 마음은 저우기 무거웠다. 중대장이 이번 경쟁총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황철웅동무는 어떤지 멋있게 느껴지지 않았다. **《농업과학원에서는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당의 농업혁명방향을 관철하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야 합니다.》**

그들이 갯을 나섰을 때 밤하늘에는 은하수가 비껴있었다. 그 하늘아래로 어깨나란히 걸음을 옮기며 그들은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농업과학원에서는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당의 농업혁명방향을 관철하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야 합니다.》**

《우리 혼자 주말을 타사야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중대가 다 혁신하면 나라의 석탄산이 그만큼 높아지게 아니겠습니까?》** 중대의 새 탄발은 그날로 다른 중대에 넘겨졌다. 그날밤 막장을 나서던 황철웅동무는 방금 교대를 마친 1소대 채탄공들이 동발나무를 메고 다시 막장에 들어가는것을 보고 그들을 멈춰세웠다. **《우리들한테 넘겨주는게 어떻습니까?》** 사실 중대가 그때 타고있던 탄발도 거의 고갈되고있었다. **《농업과학원에서는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당의 농업혁명방향을 관철하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야 합니다.》**

전투장에 내려치는 창조기상

평양방직기계공장 기계가공 1직장 로동자들

몇해전 가을 어느날 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보산시대의 요구에 맞는 훌륭한 직기들을 만들어 방직공정들에 보내주셨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작로동자계의 공로로 높이 평가하시었다. **《농업과학원에서는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당의 농업혁명방향을 관철하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야 합니다.》**

전투장에 내려치는 창조기상

평양방직기계공장 기계가공 1직장 로동자들

몇해전 가을 어느날 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보산시대의 요구에 맞는 훌륭한 직기들을 만들어 방직공정들에 보내주셨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작로동자계의 공로로 높이 평가하시었다. **《농업과학원에서는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당의 농업혁명방향을 관철하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야 합니다.》**

로동으로 빛나는 삶

금성트랙터공장 단조직장 로동자 한선호동무

이러한 작업은 고대하고 퇴근하였던 한선호 동무는 한시간도 채 못되어 다시 집문을 나섰다. 일러 보지않고도 다우지는 그의 눈앞에는 밤금 잃은 편지의 글자들이 계속 떠올랐다. 그 편지들은 아버지의 고향인 대동군에서 친척들이 보내온 것이었다. 편지에는 정조부터 들끓는 협동벌의 습격이 후련히 실려있었다. 농촌들이 더 많은 트랙터를 보내주어야 하는 때에 추르든 고장에서 날아온 편지들은 그로 하여금 트랙터모생선의 첫 공정을 맡은 한선호의 책임감을 이 세상에 하였다. **《농업과학원에서는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당의 농업혁명방향을 관철하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야 합니다.》**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 개막

【평양 2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달맞이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가 개막되었다. 개막식에서 평양과 삼천리 등지에서 오는 풍구, 배구, 탁구, 송구, 사격, 빙상호케이, 스키를 비롯한 10개 종목의 경기들이 진행된다. 개막식이 8일 평양체육관에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과학원에서는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당의 농업혁명방향을 관철하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야 합니다.》**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 개막

【평양 2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달맞이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가 개막되었다. 개막식에서 평양과 삼천리 등지에서 오는 풍구, 배구, 탁구, 송구, 사격, 빙상호케이, 스키를 비롯한 10개 종목의 경기들이 진행된다. 개막식이 8일 평양체육관에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과학원에서는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당의 농업혁명방향을 관철하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야 합니다.》**

최첨단돌파사상을 구현하는것은 영화부문의 과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문학예술혁명명은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이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완전히 개조될 때까지 중단없이 계속 수행하여야 합니다.》** **《농업과학원에서는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당의 농업혁명방향을 관철하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야 합니다.》**

최첨단돌파사상을 구현하는것은 영화부문의 과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문학예술혁명명은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이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완전히 개조될 때까지 중단없이 계속 수행하여야 합니다.》** **《농업과학원에서는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당의 농업혁명방향을 관철하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영일동지

도이첼란드방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평양 2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영일동지는 8일 의례방문하여 온 게르하르트 티레만 주조 도이첼란드방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를 만나 담화를 하였다. **《농업과학원에서는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당의 농업혁명방향을 관철하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영일동지

도이첼란드방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평양 2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영일동지는 8일 의례방문하여 온 게르하르트 티레만 주조 도이첼란드방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를 만나 담화를 하였다. **《농업과학원에서는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당의 농업혁명방향을 관철하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문학예술혁명명은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이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완전히 개조될 때까지 중단없이 계속 수행하여야 합니다.》** **《농업과학원에서는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당의 농업혁명방향을 관철하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문학예술혁명명은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이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완전히 개조될 때까지 중단없이 계속 수행하여야 합니다.》** **《농업과학원에서는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당의 농업혁명방향을 관철하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야 합니다.》**

동맹요영예 군인의 네 아들

동맹요영예 군인 립석선동무와 그의 아내 김귀녀(녀성)는 네 아들모두 조국방위에 내세운 인민군 후방가족이다. **《농업과학원에서는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당의 농업혁명방향을 관철하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야 합니다.》**

동맹요영예 군인의 네 아들

동맹요영예 군인 립석선동무와 그의 아내 김귀녀(녀성)는 네 아들모두 조국방위에 내세운 인민군 후방가족이다. **《농업과학원에서는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당의 농업혁명방향을 관철하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야 합니다.》**

독자의 편지

저는 순안구역 산양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의 딸이 이번 고칠수 없다던 거의 고막을 이 한 중앙병원에서 치료받고보니 고막염이 한가소로 딱 차올라 이렇게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그저 이런 훌륭한 사회주의보건제도를 마련해주신 것에 대한 감정을 전하고 싶습니다. **《농업과학원에서는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당의 농업혁명방향을 관철하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 보건제도가 제일입니다

6살때 부주의로 한쪽귀의 고막을 다친적이 있는 저의 딸이 영영 들을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된것은 확고하고 경협은 영화부문의 소리지며 앉아서 나날 때 명작 동영이 들고 문학예술전반이 들끓으며 혁명적 전진의 모든 부문, 전선에 약동하는 시대의 습격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농업과학원에서는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당의 농업혁명방향을 관철하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야 합니다.》**

차 수

귀를 열어주지머 약재들을 안겨줄 때 저의 눈금이 젖어드는 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딸이 드디어 소리가 들린다고 소리칠 때 저의 심장속에서는 이런 웨침이 터져나왔습니다. **《농업과학원에서는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당의 농업혁명방향을 관철하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야 합니다.》**

북남협력은 평화와 통일의 중요방도

지금 조선반도와 북남사이에는 우리의 주동적이며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대화와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있다. 판계개선의 기회가 마련된 현실은 북남사이의 협력교류를 활성화하여 평화와 민족공존의 번영을 바라는 겨레의 기대를 하루속히 실현시켜줄것을 요구하고있다. 바로 이데올로기적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주의의진선 중앙위원회는 호소문을 발표하여 북남사이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시키나갈것을 호소하였다. 여기에는 우리의 민족끼리 손을 잡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기에는 뜨거운 진정과 아량이 담겨져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북과 남의 관계를 불신과 대결의 관계로부터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시켜야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해 나갈수 있다.》**

북과 남이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는 것은 평화와 민족공존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전제이다.

외재가 중요한 장기전의 민족분열로 인한 북남사이의 반목과 불화는 민족의 단합을 저해하고 조국통일의 길을 가로막는 근원으로 되고있다.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는 서로의 불신과 오해를 풀고 판계개선을 도모하며 끊이지 않는 교류의 뉴대를 잇고 단합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반드시 진행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북과 남이 서로 신뢰하며 평화와 통일, 번영의 길을 열어나간다면 협력과 교류를 적극 실현한다. 북남사이의 다양한

적인 협력과 교류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촉진시키고 북과 남의 통일적발전과 번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한다. 북과 남사이에는 협력과 교류가 활성화되면 대결의 맹기는 사라지고 화해의 따뜻한 기운이 차나치게 될것이다. 불신과 대결의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전환시킨 6. 15 통일시대는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가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통일과 번영의 밝은 전망을 열어나가는 정당한 길이라는것을 확증해 주었다. 협력과 교류의 실현은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가시고 자주통일과 민족공존의 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최선의 방도로 된다. 북남관계는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나가는 협력, 교류의 관계로 되어야 한다.

북과 남이 협력과 교류를 실현해나가는것은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시대의 필박한 요구이다.

해내외의 온 겨레가 간절히 바라는것은 북과 남이 불신과 대결의 해묵은 감정을 대담하게 털어버리고 서로 힘을 합쳐나가는것이다. 우리 민족이 60여년이 지나도록 통일을 이루지 못한것만도 가늠아흔 일년도 오늘까지도 서로 대결하는것은 비극이고 수치가 아닐수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고 지혜로우며 슬기로운 우리 민족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지 못할 그 어떤 이유와 조건도 없다. 협력은 북과 남의 공존을 위한 사업이며 그 덕을 볼것은 온 민족이다. 비록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북과 남이 협력과 교

류를 활발히 해나간다면 얼마든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조선민족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 높고 힘있고 번영하는 민족으로 자랑 떨치기를 바라는것은 우리 겨레모두의 공통된 심정이다.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이 민족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부합되게 판계개선을 위한 실천행동에 나서야 할 때이다. 협력과 교류의 활성화는 우여곡절을 거치는 현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의 진화적전진을 ஏ는데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게 될것이다.

겨레의 지향과 념념대로 북남협력과 교류를 적극 실현하여 민족의 생산력과 민족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여 나간다.

북과 남의 협력과 교류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되어야 한다. 북남협력과 교류는 결코 어느 일방만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북과 남의 이익을 위한것이며 민족의 통일적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것이다.

지난 시기 북과 남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을 비롯한 경제협력사업들과 각종 단체들의 협력교류사업들을 적극 진행하여 6. 15 통일시대의 전진을 크게 추동하였다. 북과 남은 민족의 대의를 앞세우고 대담하게 다방면적인 협력, 교류를 실시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적극 다그쳐나와 왔다.

북과 남의 협력, 교류를 활성화하여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해나가기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애국애족적인 호소와 조치들에 적극적으로 호응해나갈 때 북남관계가 불신과 대결의 상태에서 벗어나 진정한 신뢰와 화해, 협력의 관계로 전환되게 될것이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남조선당국은 불평요건의 주장과 편견을 버리고 우리의 중대치들에 지체없이 응해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정치인, 경제인, 종교인, 언론인 등 각계각층의 자유로운 북남대화와 접촉을 가로막지 말며 협력사업들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지급처럼 협박하며 부당한 조항과 수실을 내댈며 북남협력사업을 지연하고 거부한다면 불신과 대결의 골만 깊어질뿐 언제 가도 북남관계는 개선될수 없다. 시대와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배치된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등을 돌리고 동족과 손잡고나가기로 거부하는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수 없다.

북과 남이 협력과 교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이 땅에 평화를 안아오고 강성번영하는 통일조국을 세울수 있다. 온 민족이 떨쳐나 금강산과 개성관광의 길을 다시 열고 다방면적인 협력교류사업들을 다그쳐나갈 때 평화와 통일도 그만큼 앞당겨질것이다. 온 겨레는 애국의 한마음으로 굳게 뭉쳐 동족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투쟁함으로써 북남관계발전을 추동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진화적전진을 열어나가기 바란다.

한철 영

대결을 추구하는 부질없는 놀음

지금 북과 남이 힘을 합쳐 조선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판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갈데 대한 내외여론의 목소리는 한결같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구태의연하다. 남조선집권세력이 외세와의 반공화국책공조와 《인권》모락소동에 여전히 열을 올리고있는것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수 없다.

얼마전 남조선의외교장관은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우성 부장관과의 회담에서 우리의 평화적인 우리나라농축활동에 대해 《국제규범에 대한 위반》이라고 길고들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에 대한 남조선의 위협을 구걸하였다. 한편 남조선인민위원회는 《북인권을 개선》시킨다는 명목에 우리 공화국을 모함하기 위한 국제토론회와 모락소동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겨레의 예신까지 요구하였다. 대내외에 역행하는 이런 불순한 대결행위들은 북남대화의 진전을 방해하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망동으로 필연이다.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반공화국대결을 위한 주매장으로 쓸공세하였다. 지금 북남대화가 마련되고있는 때에 상대방을 자극하는 그런 놀음을 벌리는것은 옹졸할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조선반도의 첫번째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할데 대한 온 민족과 국제사회의 요구에 앞장설수 있고있다. 반통일적인 《대북정책》을 버리지 않고 대화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반공화국책공조와 《인권》모락소동을 집요하게 벌리고있는것은 그들의 북남관계개선의지를 의심케 한다.

남조선당국이 트집잡는 우리의 우리나라농축활동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평화적책용권리에 관한것으로서 시야바라할것이 못된다. 남조선당국이 외세와 함께 우리의 우리나라농축

활동을 유엔안보리사회에 끌고가려고 획책해야 리득이 될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오히려 남조선반도의 비핵화실현을 방해하며 현 대결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된다. 남조선 각계도 북의 평화적책용을 문제시하며 그의 유엔안보리사회장정을 추진하는것은 주권국가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정세과극으로 이어질수 있다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동족이 하는 일이라면 무작정 원색끼를 꼬며 외세와 함께 반공화국공조놀음을 벌리는 못된 악습을 이제는 버릴 때 되었다. 남조선당국이 외세와의 책자공리로 우리를 모해하기 위한 모락소동을 끊임없이 연출했지만 얻은것이 과연 무엇인가. 실제와 국제적정실뿐이다. 지금도 남조선당국자들이 주변나라들에 목가처럼 반공화국공조를 구걸하지만 듣는것은 하루빨리 북남관계개선을 나서라는 훈시이다. 남들은 대화와 평화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있는데 남조선당국만은 아직도 낡아빠진 대결관념에 포로되어 대세의 흐름에서 밀려나있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시간만 낭비되고있다.

《인권》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인권》이러워나 하며 동족을 더무늬어 길고드리는것은 대화분위기를 해치는 망동이다. 남조선당국은 있지 않는 《북인권》문제를 떠들며 대화를 방해하는 고약한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내외여론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반공화국책공조와 《인권》모락소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안락으로 궁지에 몰린 자들의 처지를 더욱 부각시키고 대화와 평화의 파괴자라는 국제적규탄판을 불러일으킬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부질없는 반공화국대결소동을 걷어치우고 대화에 성근한 자세로 립해야 한다. 허영 민

것을 호소한 《통일오작교》, 통일의 문을 세우놓고 해와 별우러리 춤을 추는 내용이 담긴 《통일원무곡》을 비롯하여 서정적이며 맑은 양상의 다양한 통일주제의 노래들도 많이 창작되었다. 하나의 강토에서 하나의 피조를 이으며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이 겪고있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북과 남사이에서 여러 갈래의 대화와 접촉이 시작되었던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분열주의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년월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전민족적의지를 담은 《조선은 하나다》, 《우리 겨레 함께 살리라》를 비롯한 힘있고 절절한 통일주제가요들이 창작되었다.

1990년대에 통일주제가요들이 수없이 창작되어 우리 민족의 통일애국순동을 고무추동하였다. 《통일그대 생각》, 《통일무지개》, 《통일아리랑》을 비롯한 통일주제가요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사상과 뜻을 따라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부강번영하는 통일조국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을 반영한 노래들이다. 전설속의 오작교를 이 땅에 세우자는 광명적인 시적형상을 통하여 북과 남이 불신과 오해를 버리고 힘과 마음을 하나로 합쳐 조국의 통일을 이룩해나갈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백두명장 삼천리를 굽어보신다》, 《통일 6. 15》, 《우리는 하나》를 비롯한 통일주제의 노래들이 많이 창작되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고무해 주었다.

끝물에 통일을 안고사는 우리 인민의 뜻은 통일열망과 의지는 이렇듯 끊임없이 창작된 수많은 통일주제가요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에 평화와 번영의 새시대를 펼쳐놓기 위한 장엄한 투쟁의 길에 나선 우리 겨레는 지금 통일주제가요들을 높이 부르며 신심도높이 조국통일대행진을 벌려가고있다.

본사기자 복은희

북남대화를 위한 조선의 노력

로씨야정당과 지역기구 인터넷에 글 게재

로씨야의 진련맹블레비크공산당 북캅카스지역단체가 1월 31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남대화를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노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지금 조선반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진지한 노력에 의하여 전쟁정경으로 치닫던 정세를 완화시키고 있는 가능성들이 조성되고있다. 그러나 긴장경화와 대결을 통하여 자기의 리기적목적만 추구하려는 세력들의 대화해

책동은 점점 더 교묘하게 나타나고있다.

조선반도에서 긴장경화의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서는 모처럼 마련된 기회를 놓치지 말고 대화분위기를 적극 살려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일방적인 경제조건만을 내세우는것은 리당지 못한 처사이다. 조선반도핵문제는 철두철미 조선에 대한 민족의 핵전쟁경위와 적대시정책으로 말미암아 산생된 문제로서 그 근원을 제거할수 있는 대화방식이 필요하다.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하려

노래는 인간의 승고한 사상감정의 분출이다. 인간의 자주적지향을 반영한 노래는 민사민의 심장을 크게 격동시키면서 그들을 운동개척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한다.

우리 민족의 통일열망이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강렬해지고있는것도 통일주제가요들을 때려놓고 생각할수 없다. 오늘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고 평화와 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애국투쟁의 길에 나선 우리 인민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세겨주는 통일주제의 가요들은 우리의 생활에서 떨어질수 없는 길동무로 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노래는 생활의 친근한 길동무가 되어 언제나 어디서나 불러주어 주고 전애지민서 사람들의 심장을 끓여주기 위하여 애국투쟁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킨다.》

우리 인민에게는 누구나 즐겨부르는 《조선은 하나다》, 《통일이 통일이다》, 《우리는 하나》, 《통일 6. 15》를 비롯한 수많은 통일주제가요들이 있다.

이 노래들은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인도하는 길동무로 되고있다.

남조선경찰내부에서 구타와 폭력행위 성형 남조선의 (MBC) 방송에 의하면 경찰내부에서 구타와 폭력행위가 성행하여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얼마전 임직원 7개월밖에 안된 22살 남 경찰이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신고를 받고 인권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그가 경찰에 들어간 때로부터 무차별적인 구타를 당했다는것이다.

지난 기간에도 경찰들속에서 이와 같은 행위가 시달리다 못해 달리는 빠세에 뛰어들고 도망쳐 방충구에 들어가 하소연하는 일들이 피로를 물고 일어났다. 【조선중앙통신】

노래마다에 차넘치는 드높은 통일열망

통일 주제가 요 들을 높고

새시대를 열어나가기에는 우리 겨레의 강렬한 지향과 결연의지를 반영한것으로 하여 인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널리 불리워지고있다.

특히 6. 15통일시대와 더불어 태어난 노래 《우리는 하나》는 부를수록, 들을수록 통일애와 열정이 가슴에 파도치게 해주는 명곡인것으로 하여 민사민의 심장을 울리고있다. 이 노래는 반세기이상의 민족분열사를 끝장내고 기어이 통일된 조국에서 살아가는 것으로써 우리 인민은 물론 남녘겨레들과 해외동포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연예인 남조선의 한 문화단체의 회원은 《우리는 하나》를 동료들에게 들려주며 이렇게 부르짖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민족의 통일년월과 승일이 그대로 맥박치듯이 울려나온다.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민족의 통일년월과 승일이 그대로 맥박치듯이 울려나온다.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민족의 통일년월과 승일이 그대로 맥박치듯이 울려나온다.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민족의 통일년월과 승일이 그대로 맥박치듯이 울려나온다.》

노래는 인간의 승고한 사상감정의 분출이다. 인간의 자주적지향을 반영한 노래는 민사민의 심장을 크게 격동시키면서 그들을 운동개척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한다.

남조선의 《국민일보》가 1월 26일 《당국의 무능이 가져온 구제역재앙 남조선신문이 보도》

남조선의 《국민일보》가 1월 26일 《당국의 무능이 가져온 구제역재앙》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사설은 전지역을 휩쓴 이번 구제역재앙은 당국이 발생초기 제때에 대책을 세우지 않은데 인연이 있다고 밝혔다. 전염성이 매우 강한 구제역은 초기방역이 관건이라고 하면서 사설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올해 동북지방은 온 민족이 전쟁을 빈대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정의의 애국투쟁에 총력해나서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우리 공화국의 확고한 평화수호의지와 적극적인 대외노력에 고무되어 내외조선민들의 정열적투쟁을 통해 동족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지워져나가고있다.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들은 2011년을 맞아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를 시민의 힘으로 지켜내자.》는 내용의 글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글에서 북남관계가 파탄되고 조선반도평화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고있는 오늘날의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수 없다고 하면서 《긴장구조와 무력충돌에 따른 최대피해자는 우리 민족이며 따라서 민족의 생명은 어떤 형태의 정치적, 군사적대결책동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특히 군사적긴장조정을 행하는 자제되어야 하고 《리산가족상봉과 인도주의적협력사업의 전개, 금강산 및 개성관광 등 남북관계정상화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재미동포단체 올해활동계획 확정

재미동포전국연합회가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총회를 가지고 올해활동계획을 확정하였다.

총회에서 참가자들은 조미판계정상화, 북남관계회복 등을 위한 투쟁으로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을 앞세우고 있다. 남조선의 아당들과 각계 단체들은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를 합성명을 《전제조건 없는 북의 대화제》로 환영하고 《대화개선은 판계개선의 첫 걸음》이 될수 있다.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할 때이다.》라고 하면서 당국이 조속히 북과의 대화에 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한편 남조선 각계는 《북의 제의에는 우리 민족끼리의 대화와 협력으로 단국을 타개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조선반도문제는 당사자인 남과 북이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는것이 당연하다.》고 하면서 당국이 외세와 공조하는 대결정책을 포기하고 《새로운 변화에 맞는 정책전환을 하여야 한다.》 《(정부)는 모처럼 왔으면 대화회기를 살려 남북관계를 시급히 개선해나가기 바란다.》고 일치하게 주장하고있다.

최근 남조선의 한 단체가 여론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74.8%가 조선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북남사이의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당국은 북과의 대화를

대결을 추구하는 부질없는 놀음

대결을 추구하는 부질없는 놀음

대결을 추구하는 부질없는 놀음

대결을 추구하는 부질없는 놀음

대결을 추구하는 부질없는 놀음

대결을 추구하는 부질없는 놀음

대결을 추구하는 부질없는 놀음

대결을 추구하는 부질없는 놀음

대결을 추구하는 부질없는 놀음

대결을 추구하는 부질없는 놀음

아리랑 미끼끼리 뜻과 힘에 합력

통해 문제해결방도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온 대학교수는 전쟁의 위험이 커질수록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야 할것을 강조하며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실현하려는 민심의 지향은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고 평하였다. 옳은 주장이다. 남조선의 아당들과 각계 단체들은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를 합성명을 《전제조건 없는 북의 대화제》로 환영하고 《대화개선은 판계개선의 첫 걸음》이 될수 있다.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할 때이다.》라고 하면서 당국이 조속히 북과의 대화에 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한편 남조선 각계는 《북의 제의에는 우리 민족끼리의 대화와 협력으로 단국을 타개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조선반도문제는 당사자인 남과 북이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는것이 당연하다.》고 하면서 당국이 외세와 공조하는 대결정책을 포기하고 《새로운 변화에 맞는 정책전환을 하여야 한다.》 《(정부)는 모처럼 왔으면 대화회기를 살려 남북관계를 시급히 개선해나가기 바란다.》고 일치하게 주장하고있다.

남은 제원을 앞세우며 다루고 대결하던 낡은 틀에서 벗어나 서로 합심하고 협력함으로써 풀어졌던 이 땅의 지역이 다시 이어서고 갈라진 동포형제들이 품같이 만나 혈육의 정을 나누며 화해의 새 장을 펼쳐는것과 같은 경이적인 사변들을 안아왔다. 그때에는 북남대결로 인한 불안감이 없었고 온 겨레는 평화로운 환경속에서 민족공존의 번영을 위하여 힘과 지혜를 합쳐나갔다. 6. 15통일시대의 격동적인 현실을 목격하면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못배낼 일이 없고 분열의 장벽은 불발의 눈이마무 무너져내리게 된다는것을 고귀한 진리로 새겨안았다. 물론 6. 15통일시대의 성과들은 쉽게 이루어졌것이 아니었다. 도전과 시련은 있었지만 북과 남은 그것을 우리민족끼리 대대로 극복하며 북남관계를 끊임없이 전진시켰다. 지금 북과 남사이에는 긴장 완화와 평화, 화해와 단합, 협력사업 등 절실한 문제들이 해결을 기다리고있다. 그것은 어느 누가 다 민족의 생산자들과 관련된 문제들이고 있다. 북과 남이 조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피사면 우리 민족끼리의 판계와 힘에 서서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된 문제들이고 있다. 지향에 필한것을 얼마든지 겨레의 기대에 보답하게 될것이다. 사상과 제도의 차이는 결코 화해와 전진의 원인이 될수 없으며 대대로 한강토에서 한포를 이어온 우리 민족이 서로 불신하고 대결할 리무가 없다. 우리 민족끼리 손을 맞잡고 마음과 뜻을 합치면 우리 민족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힘있는 민족으로 자랑떨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라설하

대결을 추구하는 부질없는 놀음

대결을 추구하는 부질없는 놀음

대결을 추구하는 부질없는 놀음

대결을 추구하는 부질없는 놀음

대결을 추구하는 부질없는 놀음

대결을 추구하는 부질없는 놀음

대결을 추구하는 부질없는 놀음

대결을 추구하는 부질없는 놀음

대결을 추구하는 부질없는 놀음

